

현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ldren Library Movement of the Present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I. 서론	가. 운동의 내용
II. 현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유형	나. 의의와 한계
1.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기적의 도서관' 운동	III. 어린이도서관운동의 과제
가. 전개과정과 내용	1.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나. 성격과 의의	2. 민간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충
2. 부천시역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	3. 지역도서관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
가. 전개과정과 내용	4. 지역문화운동으로의 발전방안 모색
나. 성격과 의의	IV. 결론
3. 개인 및 단체가 주도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운동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인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되는 '기적의 도서관운동', 부천시역 '마을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 개인 및 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운동'을 고찰하였다. 각 운동의 내용과 특성,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조망해 보았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운동, 어린이도서관운동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s children library movement. For this, this research deals with 'Library Movement of Miracle' by Citizen Action for Reading Culture, 'Mini-Library Making Movement in Bucheon' and 'Children Mini-Library Movement' by a variet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writer looks into contents, characteristics,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se Movements. In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s the direction of children library movement in the future.

Key Words: Public Library, Children Library, Public Library Movement, Children Library Movement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2005년 2월 14일 • 최종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한 방송사에서 방영된 '기적의 도서관 운동'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불과 1년여만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무려 7개관이나 건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까지 10개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실을 새롭게 확충하거나, 기존 어린이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급기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운영을 계획하게 된다. 또한 민간에서도 개인 및 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문고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냉대 받는 등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방치되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도서관건립열풍이 불고 있는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보건대 바야흐로 '어린이도서관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어린이도서관건립이라는 주요한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운동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은 세 가지 사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먼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된 '기적의 도서관운동'이 그 첫 사례이며, 다음으로 부천시라는 지역에서 진행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이 두 번째 사례이며, 마지막 사례로는 개인 및 단체에 의해 주도하는 민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운동'이다. 이들 어린이도서관운동은 어린이도서관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옴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며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운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성과가 단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을 비롯한 주요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어린이도서관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운동이 가진 내용적 특성을 비롯하여 성과 및 의의를 고찰하며, 그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운동 현상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불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이

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 내용,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도서관현상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성숙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도서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를 기술하고 그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도서관현실을 보다 이해하고 개선하고 도약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기본입장은 '주체성 있는 학문하기'¹⁾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II. 현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유형

1.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기적의 도서관' 운동

가. 전개과정과 내용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한국사회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아니다'²⁾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1년 결성된 시민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재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책읽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세워내는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현단계 진행되는 도서관운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개혁시민연대)에 의해 진행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운동이 계기가 되어 결성되었다. 문화개혁시민연대는 문화민주주의를 내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행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개혁 및 문화의 공공영역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이다. 당시 이 단체는 최근 문화와 정보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와 지식역량의 강화를 위해 출판과 도서관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의 배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및 서명운동을 벌여냈다. 이들은 "도서관이 도서관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구입비의 증액이 시급하고", 더불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
- 1) 이는 지난 20여 년 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를 주축으로 하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공동작업실에서 고집해온 학문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의 학문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연구자의 학문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끌어내 주고 발전시켰으며 그 해답을 제공해주었다. 연구자는 이 곳에서 한국에서 연구자로 학술논문쓰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탈식민적 학문하기', '주체적 학문하기',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에 기반을 두고 그 현상에 적용되는 적실성 있는 학문하기'라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 2) "돈 없으면 책도 읽지 말라고?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2003. 7. 17]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증액을 통한 자료확충은 출판산업 활성화도 직결될 뿐 아니라 우수한 지적 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사회기반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³⁾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운동으로서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주도 하에 전개된 이 같은 경험은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⁴⁾이란 사회운동을 출범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001년 2월 26일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의 알권리, 읽을 권리, 지식의 공공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을 정상화하고, 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범시민적 운동”⁵⁾을 전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또한 2001년 4월 12일에는 「도서관장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6월 2일에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출범 당시 발간된 자료에 이 운동의 의도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지식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 책읽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위하여 제 시민사회단체/개인이 참여하는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을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운동에서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1차적 목표로 내세운 것은 도서관이야말로 17세기부터 시민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 문화의 핵심시설이지만 우리나라 도서관현실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식사회로 만드는 첩경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관 제도의 안정적 확보와 도서관 운영의 안정화, 내실화를 통해 지식생산과 이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문화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⁶⁾

이처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일반시민들이 개인장서를 갖추는 것 외에 책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치 않은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자는 의도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도서관이야말로 시민의 지식접근권을 높이고, 지식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핵심기관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시민의 책읽기와 지식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3) “‘도서관구입비 늘립시다’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겨레신문(2000. 6. 26)

4) 출범 당시는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만들기 국민운동’으로 출발했으나 2001년 3월 26일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5)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자료집, 2001. 2. 19.

6)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에 참여를!”, 도서관 장서, 이대로 좋은가(제1회국민토론회 자료집), 2001. 4. 12(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이 운동에는 현재,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문화작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출범이후 도서관계, 출판계,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동참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 도서관 콘텐츠 실태조사, 관련법개정운동, 각종 토론회와 연구회 등의 활동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협력, 연대하여 현단계의 도서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확보하는 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2003년 1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문화방송 ‘느낌표’ 제작진에게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 제안, 이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한 코너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된 책의 판매수익금을 어린이전문공공도서관건립기금으로 사용하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어린이도서관 부지선정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등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어린이도서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어린이전문도서관 운영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서관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⁷⁾ 또한 각 지역에서 교사와 학부모, 도서관운영자, 문화예술인, 독서단체, 각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 도서관건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도서관건립위원회라는 민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도서관설립부터 운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⁸⁾

이후, 기적의 도서관건립을 희망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건립신청을 받게 되는데 무려 43개의 지역⁹⁾에서 신청하는 등 각 지역에서의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한 반응은 매우 뜨겁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남 순천시를 비롯하여, 경북 제천시, 경남 진해시, 제주 제주시, 충북 청주시, 제주 서귀포시,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충남 금산군, 대구 달서구, 강원 태백시에 이르기까지 총12개의 지역을 어린이도서관건립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도서관은 하나둘씩 세상에 탄생하게 된다. 2003년 7월 5일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인 순천도서관을 착공한 후, 같은

7) 당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어린이도서관건립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경현(교보문고 대표), 권정생(동화작가), 김재운(탐라대 출판학과), 김정근(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김현희(아동교육), 도정일(책읽는사회 상임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서해성(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안상운(번호사), 류주형(중대부중 교사), 이문재(시인), 이용남(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재복(아동문학비평가), 정기용(건축가), 조건영(건축가), 최재천(서울대 생물학과), 한상완(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대표), 홍성담(화가), 황석영(소설가) 등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제1기 기적의 도서관 학교 자료집(2004. 1. 31 - 2. 15), p.172.)

8) 당시 각 지역 건립위원장 자리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하였다. 순천(박기영), 제천(이철수), 진해(이효재), 제주(허순영), 청주(도종환), 울산(석수경), 부평(최원식), 고양(김사인), 태백(황재형), 대구(김민남) 등.

9) 당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 신청한 지역은 강원 태백시, 양양군, 원주시 / 경기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부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포천군 / 경남 김해시, 진해시, 통영시 / 광주 북구, 서구 / 경북 영주시, 포항시 / 대구 달서구 / 대전 동구, 유성구 / 부산 해운대구 /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영등포구 / 울산 남구, 북구 / 인천 중구, 부평구 / 전남 순천 /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주시, 고창군 /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 충남 금산군, 서산시, 아산시 / 충북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로 총 43개이다.

해 11월 10일에 기적의 도서관이 최초로 개관하게 된다. 이어 12월 15일에는 제천에서, 12월 22일에는 진해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되는 쾌거를 올리게 된다. 2004년에도 계속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와 제주에서 동시 개관하였고, 7월 15일에는 청주에서, 같은 달 28일에는 울산 북구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여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2004년 현재 7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5개의 지역에서 도서관건립과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지역에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건립 운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현재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주도한 어린이도서관운동은 한국의 도서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운동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 성격과 의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의해 진행된 기적의 도서관운동은 최근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이 운동의 성격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정리될 수 있다.

① 시민단체에 의한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줌

최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의해 진행된 도서관건립운동인 기적의 도서관운동은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된 도서관운동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운동영역들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못하고 도서관계만의 고립적 운동에 그쳐 운동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그 위력의 면에서 대단히 미약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는 다양한 시민운동단체와 방송국, 지방자치단체, 일반시민들을 도서관운동에 끌어냄으로써 도서관운동의 고립화를 피하며 운동의 사회적 역동성을 내어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서관운동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기적의 도서관운동은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도서관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도서관 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만 하다.

②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우리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저조함에 대해서는 과거 도서관운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도서관운동의 명분을 세우는 것임과 동시에 운동의 세력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할 때 비로소 도서관운동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이 우리 사회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점은 이 운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개관과정과 운영과정에 다양한 인사와 시민, 기업체,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하게 함과 동시에 이를 대중적인 오락방송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도서관운동에 있어서 방송매체의 엄청난 위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된 일개 TV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기적의 도서관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도서관 건립이라는 물리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나서도록 하는 데 큰 자극을 주게 되었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서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③ 민과 관의 협력모델 창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의해서 진행된 ‘기적의 도서관’은 민과 관이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민관협력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민과 관의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부분에서 건립기금은 문화방송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 선정된 책의 판매수익금을 사용하였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부지 선정 및 도서관 건립실무(설계, 시공, 도서컨텐츠 수급 등)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성금,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영역에서 기부한 각종의 자원에 의해 도서관이 건립되었다.¹⁰⁾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책임도 민의 참여와 민관협력이라는 새로운

10) 이들 도서관의 건립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들은 다양한 기업체들의 기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기업체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금호전기(조명) (주)노아테크놀로지(공사현장 인터넷 공개), (주)대도벽돌(벽돌), 대종메디스(장애인용 전동책상), 두솔시스템(컴퓨터양면모니터), d line korea ltd.(문손잡이), (주)DPI(어린이용 무공해 페인트, 북토피아(전자책), 사람과나무(간판), 설문대기획(어린이용 동화CD타이틀), (주)시민테크(화장실칸막이), 아모스디자인(건축모형제작), 아티젠(패브릭), FAD Partners(기적의 도서관 로고, 마크 디자인), 웅진코웨이개발(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주산세라믹(아동용변기), (주)캡스(무인경비시설), 코리아센서닷컴(무인대출반납기), (주)파루(위생환경설비), (주)포스정보(도서관리프로그램), (주)태흥아이에스(디지털복사기), 한화중합화학(바닥재), 누가화방/지에스테크(패널제작), (주)에스에너지(태양광시설), LG IBM(컴퓨터), LG전자(가전), (주)퍼시스(가구), (주)호디(전산자동화설비 구입 및 설치), 교보문고(도서) (주)효자원(도서) 한국프뢰벨(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도서), 환경재단(도서), 가나중합건설(주), 광득중합건설(주), 남송중합건설(주), 성장기공(주), 아이코너레드(주), (주)유타엔지니어링, (주)원건설건축사사무소, 농협중앙회순천시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미파스 등(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제1기 기적의 도

패러다임에 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방 자치단체는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처럼 이 운동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 창의'와 '관의 자원'이 결합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체제"¹¹⁾로서 민과 관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도서관운동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도서관운동의 방향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④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모형창출 및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먼저,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을 통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물, 공간, 운영, 프로그램의 모형들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후 한국도서관의 발전 특히, 어린이도서관과 그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도서관건물과 공간구조의 차원에서 '기적의 도서관'은 이름답고 쾌적한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도서관의 시설과 건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를 향상시켰으며,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운영방식과 서비스 면에서도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활동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개인 및 단체들의 어린이도서관건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등 '어린이전용'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도서관에서도 새롭게 어린이실을 확충한다든지, 기존의 어린이실을 리모델링하는 시도가 이뤄지는 등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¹²⁾,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설립운영을 계획하게 된다.¹³⁾ 이처럼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운영이 시발점이 되어 우리사회에 이른바 '어린이도서관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은 향후 한국 도서관의 발전에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다.

2. 부천시역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

가. 전개과정과 내용¹⁴⁾

현단계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으로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부천시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 사례이다. 이는 지역도서관운동의 전형으로서

서관 학교 자료집(2004. 1. 31 - 2. 15), p.175.)

11)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bookreader.or.kr/>> [인용 2004. 1. 25].

12) 이러한 차원에서 2003년 4월 24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특별시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13) 2004년 12월 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14)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부천시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 2004, 이진우, "책읽어주는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 설립 및 운영사례",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427-449쪽을 참고하여 재구성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에서 도서관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천이라는 지역적 특색에 기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이후 새롭게 건설되는 부천의 신도시에 문화적 공간에 대한 시민과 시의 요구가 표출되었고, 문화공간의 주요한 거점으로 도서관을 상정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도서관운동이 출발하게 되었다.

문화도시 부천 건립에 대한 부천시민과 부천시의 의지는 2001년에 ‘푸른부천 만들기 21 실천협의회’(이하 푸른부천 21)란 민간협력 조직을 출범시키게 하였다. 푸른부천 21은 문화도시 부천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로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총 서른다섯 개의 의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중 스물세 번째 의제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만들기’를 설정한다. 이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2001년 후반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를 결성하게 된다. 이 분과에는 부천시립도서관, 시의원, 사립문고, 공립문고, 사회교육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다.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만들기’란 의제의 실현을 위해 ‘동네마다 하나씩 도서관만들기’와 ‘지역의 도서관 네트워크 건설’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며 지역의 공립문고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¹⁵⁾

공립문고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2001년 7월말부터 부천시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우선 부천지역의 사립문고를 비롯한 도서관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6개의 공립문고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6개의 공립문고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의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공립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된다. 2002년에 고강복지회관(도란도란어린이도서관), 원종종합복지관(원종새싹어린이도서관), 심곡복지회관(복사꽃필무렵), 삼정복지회관(아름드리도서관), 약대동 주민자치센터(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에 공립문고가 문을 열게 되고, 2003년에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꿈나무가족도서관)에 공립문고가 문을 열게 된다. 이들 공립문고의 개관이후 같은 해에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햇살이가득한도서관)와 부천시노동복지회관(행복한도서관)에, 2004년에는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사랑나무가족도서관)에 공립문고가 개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처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부천시에 총9개의 공립문고가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부천시와 부천시립도서관, 푸른부천 21실천협의회와의 협력 하에 만들어진 공립문고형태의 이들 작은도서관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전액은 시에서 지원하며, 운영은 민간에 의해 위탁운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¹⁶⁾ 또한 전문사서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전

15) 당시 부천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35개의 공립문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작은도서관네트워크분과 설립이후는 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공립문고 설립에 진전을 보이게 된다.

16)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 공모와 현지실사, 예산지원 및 감사 등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제반 활동은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주도하였다.

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는 부천시에 공립문고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부천시립도서관과의 협력 하에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책을 가까이, 도서관을 가까이’라는 주제의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부천지역의 시립도서관 및 공사립문고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내어 도서관사업에의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도서관문화의 지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후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는 2004년 2월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변모하여 민간영역의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며 작은도서관간의 연계활동을 도모하고 있다.¹⁷⁾ 더불어 도서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시의원이나 시립도서관 등 시 행정에 관여하는 인물이나 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

나. 성격과 의의

지금까지 부천지역에서 추진해온 ‘마을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 시도된 공립문고 설립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지역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제시

이 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부천의 부족한 도서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천시와 부천시립도서관, 시민단체, 사립문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도서관의 지역적 거점 확보’라는 주요 의제를 실현시킨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요 지점에 공립문고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도서관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되고 도서관 정책과 운영이 지역자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 지역의 이와 같은 실험은 이후 각 지역 도서관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도서관만들기 운동은 타 지역 도서관운동의 벤치마킹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민과 관의 협력체제의 구축

부천지역의 ‘마을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은 민과 관의 협력에 의해 이뤄낸 사례로서 앞으로

17)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지역도서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11월 6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를 위한 부천시 작은도서관 공동행사’를 진행하였다. 부천시에 설립된 9개의 공립문고는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그림책 버스 뚜뚜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18) 이진우, “어린이도서관 운영실무와 사서의 역할,” 어린이도서관 길잡이(서울 : 어린이도서관연구소, 2004), p.94.

전개될 도서관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천시립도서관과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립문고의 설립과 운영은 ‘기적의 도서관운동’에서 보여준 민과 관의 협력과는 또 다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에서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민간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양성,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활동, 도서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이행하는 등 민과 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설립비용,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 등의 운영비 일체와 장소는 모두 시에서 지원하고, 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민간영역에 위임하는 협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민간영역의 도서관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도서관적 기반이 한층 더 안정화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부천지역에서 시도된 지방자치단체, 시립도서관, 민간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도서관운동은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도서관운동에 있어서도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

마지막으로 부천지역의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은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이 운동이 가지는 주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설립에 참여함과 동시에 설립된 공립문고를 비롯하여 사립문고 및 순회문고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간의 명실상부한 지역도서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주로 시립도서관간의 상호대차서비스가 한정되는 데 비해 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이들 공사립문고와 순회문고간의 상호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시도된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직접적인 연계활동은 지역단위의 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되는 도서관운동의 방향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3. 개인 및 단체가 주도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운동

가. 운동의 내용

마지막으로 최근 어린이도서관운동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개인 및 단체를 비롯하여 교회, 아파트단지 등 민간차원에서 문고형식의 어린이작은도서관을 건립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는 운동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민간에서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시도는 1980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초기의 어린이도서관은 대개 어린이도서관연구회에 소속된 회원

들이 어린이 책과 어린이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문고를 열어 주변 어린이들에게 공개하는 일종의 가정문고의 형태로 운영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더불어 대부분 어린이 책에 대한 개인적 의지와 열정에 의해 자녀와 그 주변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지역운동적 차원에서 사비를 털어 문고 형식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들이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건물 내외에 도서관적 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에스카이어재단의 인포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인포어린이도서관은 1990년 상계동에 처음 생긴 이후 국내 14곳, 해외 8곳이 설립되어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관내에 위치해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90-1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방송보도 영향으로 인해 각 지역에서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설립요구와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어린이도서관의 일부는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소속의 어린이도서관은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개별적 도서관운영의 어려움과 한계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는 주로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출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문고가 중심이 되어 이들 도서관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에 발족하였다. 2005년 현재 이 협의회에는 전국적으로 22개의 어린이도서관이 가입되어 있다.²⁰⁾ 또한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2001년 발족하여 현재, 사랑교회 소속의 느티나무도서관을 비롯하여 13개의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7개의 준회원도서관이 활동하고 있다.²¹⁾ 또한 인포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인포어린이도서관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합동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의의와 한계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은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19)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전영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민간 어린이문고는 1980년 잠실 시영아파트에 사는 채규철씨 집에 마련한 문고이다. 전영순, "어린이 문고의 현황과 전망",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한국도서관협회, 2002), p.406.

20) 서울 중랑구 파랑새어린이도서관, 중랑구 한밀어린이도서관, 광진구 날아다니는 나무, 강북 작은나무, 성동구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동대문구 꿈틀도서관, 은평구 대조동어린이도서관, 송파구 함께크는우리, 강남구 책고리, 경기도 구리 아이디어어린이도서관, 구리 에기똥풀어린이도서관, 성남 중원구 책이랑어린이도서관, 평택 가나안어린이도서관, 수원시 장안구 열린문고, 인천시 연수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안양 작은키나무어린이도서관, 충북 청주 초롱이네어린이도서관, 청원 들꽃방어린이도서관, 경북 김천 헨스헨어린이도서관, 전남 순천 기적의도서관, 부산 남구 들꽃이야기, 제주시 연동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이들 협의회 소속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1)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는 현재 느티나무(사랑교회), 은평사랑(은편사랑교회), 푸른(청파교회), 감자꽃(예수사랑교회), 씨앗(겨자씨교회), 두껍아두껍아(솔내음교회), 동녘작은(동녘교회), 강아지똥(소망교회), 백석느티나무(백석교회), 가나안(가나안교회), 샘터꿈의도서관(샘터교회), 초롱초롱(남해고원)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7개의 준회원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다.

도서관적 혜택을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어린이들에게 서비스하기에는 그 수적측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도서관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나가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책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어린이도서관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과 책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부분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가지는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운동의 주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민간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의 경우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자료구입비를 비롯한 각종 운영비를 개인의 자산이나 회원들의 회비 및 프로그램운영비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라 '돈 먹는 하마'²²⁾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이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간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은 3년이 고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게 된다. '처음 1-2년은 순수한 열정으로'²³⁾, '책읽기가 좋아서 자녀와 주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²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지만 예산과 인력, 공간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사례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조달을 개인이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사서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서를 고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재정적 여유가 없기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구멍가게 규모에 주먹구구식 운영'²⁵⁾을 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의 경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개인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대부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고 매우 고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22)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전계서, p.49.

23) 전영순, 전계논문, p.408.

24)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전계서, p.174.

25) 상계서, p.15.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부실과 기능의 미약이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작은도서관운동의 출현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측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부족을 메워주고 있는 이들 민간 작은도서관을 단지 민간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도서관이 공공영역으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도서관에 대한 자발성과 그 에너지가 공공의 안정적 지원과 결합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Ⅲ. 어린이도서관운동의 과제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시민단체나 개인에 의해 주도되거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며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단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서비스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단계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여 향후 어린이도서관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비롯하여 민간에서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건립문제가 쇄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실의 리모델링 통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등 어린이도서관의 외형적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의 외형적 증가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을 맡을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맡고 서비스를 책임질 사람들이 어떤 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전문사서로서의 의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서를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단에서는 어린이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개발,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요구되는 전문사서를 제대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서가 어린이서비스

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재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사서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전문사서의 양성과 더불어 어린이도서관의 모델과 설립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강단과 현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충

앞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어린이작은도서관의 현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의 면이나 재정적 기반의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도서관들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들은 과거 민간도서관 운동의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났었다. 과거 6, 70년대 마을문고운동의 경험이나 8, 90년대 도서관 및 주민도서관, 작은도서관 운동의 과정에서 민간의 의지와 희생에 힘입어 설립 운영되다가도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사회에서 사라져 버린 민간도서관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진 도서관운동의 시도와 성과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초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초기 공공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간에 의해 제기된 도서관운동이 결국 그 사회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운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여 민간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활동으로 시작되어, 사적인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후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를 밟아 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간의 도서관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민간의 어린이작은도서관의 제도화를 비롯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민간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민간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도 일회적인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도서관에서는 그 도서관의 이용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도서관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이슈화하고 여론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끌어내어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 요구된다. 앞서 기적의 도서관운동과 부천지역 작

은도서관만들기 운동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두 사례의 도서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민과 관의 협력체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두 사례운동에서 민에 의해서 출발한 도서관운동이 관의 안정적 재원을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도서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도서관운동에서는 민간의 자발성과 에너지가 관의 안정적 재원과 결합하여 도서관운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체제를 이루고 난 이후의 과제는 민간어린이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민간도서관을 공립문고화 내지는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민간도서관의 공립도서관의 분관화를 주요 계획으로 상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립문고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2006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민간도서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물론이거니와 공립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유기적 결합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고, 민간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주요 거점이 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부족현상도 많이 타개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도서관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민간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사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사립문고를 비롯한 민간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별개로 운영되었고, 공공도서관과의 협조체계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어린이도서관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는 현재적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이들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간도서관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이 직접적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립문고를 비롯한 민간의 도서관을 지원하며, 또한 각 도서관간에 상호대차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지역의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4. 지역문화운동으로의 발전방안 모색

과거 우리나라의 도서관운동이 도서관만의 혹은 사서들만의 고립적 운동으로 진행으로써 운동

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도서관운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도서관계만의 운동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운동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시민,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의 도서관, 사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지역문화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운동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운동적 관점에서 도서관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도서관을 고민하고, 도서관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확산하는 운동, 즉 도서관이 왜 중요하고 도서관이 가지는 유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용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이상적인 도서관은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에 좋은 도서관 만들기 모임'과 같은 모임의 결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지역도서관문화의 확산운동을 벌여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 및 이용자 모임 등 도서관지원 조직을 건립함으로써 이들이 도서관을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역도서관문화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자발적인 도서관후원조직으로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를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도서관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도서관운동을 돕거나 재정적 후원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지원조직으로, 또 영국에서는 도서관이 폐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서관을 지켜내고 도서관을 후원하는 자발적인 시민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친구들'은 지역 도서관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를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해서 도서관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운동의 사회적 위력을 확산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된다. 도서관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야할 필요성은 보다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동화읽는어른모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어린이문화 및 교육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꾀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운동의 외연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운동이나 부천시 지역 도서관운동에서의 경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의지가 지역도서관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의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여 이들이 지역도서관문화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은 도서관을 세워내는 구체적 공간이며 지역사회와 주민은 도서관을 세워내고 만들어내는 지역도서관 운동의 실제적인 동력이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주민,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범시민적 운동을 통해 도서관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동의 사회적 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어린이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최근 도서관계의 현실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도서관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식을 극복하는 데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을 착실하게 가져 본 아이들이라면 성장해서도 도서관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을 세우고 제대로 운영하는 일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열풍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운동의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운동이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각적인 관심과 모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가칭) 운영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2004.
느티나무문화재단. 제1회 어린이도서관학교자료집, 2003.
느티나무문화재단.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자료:도서관의 친구들 활동소개 세미나, 2004.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자료집, 2001. 2. 19.

26)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제1회 기적의 도서관자료집(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2004), p.73.

-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엮음.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어린이도서관연구소, 2004.
- 어린이작은도서관도서관협의회.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자료집, 1999.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이영주.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제1회 기적의 도서관자료집(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2004. pp.47-81.
-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우리동네사랑방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발전방향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4.
- 이진우. “책읽어주는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 설립 및 운영사례,”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427-449.
- 이진우. “어린이도서관 운영실무와 사서의 역할,”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어린이도서관연구소, 2004.
- 전영순. “어린이 문고의 현황과 전망,”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405-426.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도서관협회. 제1기 기적의 도서관학교 자료집, 2004.
-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부천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 2004.
-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03.
-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반짝쇼가 아니다-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2003. 7. 17].
- “돈 없으면 책도 읽지 말라고?-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2003. 7. 17].
- “‘도서관구입비 늘립시다’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겨레신문(2000. 6. 26).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bookreader.or.kr/>> [인용 2004. 1. 25].
-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lovei>> [인용 2004. 1. 25].